

전남광주·울산, 미래차 동맹… AX 등 초광역 협력모델 확대

미래동반성장 우호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매개로 강점 결합
‘AI 기반 공장혁신’ 공동 추진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인 전남 광주와 울산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매개로 한 ‘미래차 동맹’에 나섰다.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수소·이차전지, 문화관광까지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 상생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는 28일 통합특별시장 광주시장 비즈니스룸에서 ‘미래동반성장을 위한 우호협약’과 ‘지역대학 간 산업AX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 전남대·울산대·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자동차라는 연결고리로, 울산은 현대차 핵심 생산기지가 자리한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도시고, 광주 역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이 28일 광주시장 비즈니스룸에서 김상욱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미래동반성장 우호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기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2024년 생산량 기준으로 울산은 154만 대, 광주는 51만대로 화성(53만대)과 함께 국내 톱3 자동차 생산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전통자동차산업의 강점을 AI와 미래차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AI 기반 공장 혁신(AID F·AI Defined Factory)’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설계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제조 전 과정을 AI로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기술 개발과 실증, 데이터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수소와 이차전지 산업도 함께 육성해 자동차와 에너지산업 간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동맹에 대학들도 함께하여, 전남대와 울산대, GIST와 UNIST는 산업AX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기술교류, 전문인재 양성과 인적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양 자자체는 대학 간 연구협력이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계기관 연결을 맡기로 했다.

한편,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 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동차’라는 공통 산업기반을 가진 두 도시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 AI·미래차·에너지에서 관광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광주와 울산은 미래산업과 지역혁신의 동반자로 함께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 AI 전환과 자율 주행, 재생에너지, 문화교류, 정원 관광까지 폭넓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초광역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시장은 “양 도시의 협력이 전남광주와 울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자동차와 AX,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와 국회, 관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대응

예타 통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 균형발전 등 대응 논리 구체화

경북도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회와 관계 지자체 등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미나는 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북도·전북특별자치도·대구시가 공동 주관했다. 김상업 전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무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과 전북·대구 도로·교통 분야 국장, 전문가들

이 예타 대응 논리와 정책적 타당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전북·대구, 5개 기초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KDI가 올해 1월 예타에 착수한 이후 지난 4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경제성 보안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논리와 산업·관광 자원을 연계한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계 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동서3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타 대응 논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화성시-삼성전자, 미래성장 상생협력 협약

기업활동 과정 행정지원 적극 검토

화성특례시가 삼성전자의 투자·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화성특례시는 2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삼성전자와 ‘미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시 관계자,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삼성전자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연구·업무 기능 확충 및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부서 협업과 행정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이 미래성장 상생협력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화성시에서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시기는 사업 여건과 추진 상황에 따라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주낙영 경주시장, 유럽에 신라문화 알린다

프랑스 출국…한불수교 기념행사 참석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사진)은 29일 프랑스로 출국해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내달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천년고도와 신라불교 문화를 알리고 도시외교를 펼친다. 이번 5박 7일간의 일정에는 임환 경주시의회 의장과 최진열 시의원, 문화유산과장 등 9명이 동행한다.

오는 30일에는 유럽 최초로 신라를 단독 소개한 국립기메동양박물관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교류의 시



간을 갖는다.

내달 1일에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산청·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한 ‘석굴암과 천년고도 경주’ 주제의 대규모 문화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후 주 시장은 자매도시 베르사유시를 방문해 교류한 뒤, 사찰음식 시연회에 참가한다. 또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다시 신라문화 관련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주(경북)=김준한 기자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의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며 신규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5,93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신고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진도군-농업기술진흥원

첨단농업 연구개발·사업화 추진

진도군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농업(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진도군은 28일 진도군청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첨단농업(스마트농업) 분야의 포괄적 기술 협력과 표준화 모형(모델) 현장 확산 ▲신품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확대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도(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산시,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경산시는 28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조현일 시장과 지역주민,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만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산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참여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천시,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영천시는 28일 영천시민회관에서 ‘2026년 3분기 시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을 열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 봉사과 주민화합, 환경보전, 생활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영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산청군, 내달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내달 2일 개막식…10일간 진행

산청군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제26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 30분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성리, 솔지, 노라조의 축하공연과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예정돼 있다. 축제 기간에는 힐링 음악여행, 마당

극, 사일런트요가, 버스킹, 뽕뽕 허준명 의선발전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K-웰니스 치유관광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산청흑돼지구이관과 향토 먹거리가 들어선다. 11개 읍면 로컬 체험존과 60여 개 약초·농특산물·공예 판매장터도 함께 운영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